

법정 최고금리가 '일상'이 된 참혹한 현실에 대한 예술인들의 증언

『2025 예술인 금융 재난 보고서』



한국스마트협동조합
Social / Mutual ART

2025. 10. 18

한국스마트협동조합

『2025 예술인 금융 재난 보고서』 보고서 핵심 요약

1. 조사 개요

- 목적: 예술인 금융 소외 실태 데이터 증명 및 사회적 의제화
- 대상: 전국 예술인 179명
- 기간: 2025. 10. 10. ~ 10. 18. (9일간)
- 기관: 한국스마트협동조합

2. 주요 결과

[증명] 예술인은 '성실한 상환자'였다.

- 근거: 3년간 예술인 354명 대상, 신용 무관 대출(약 7억 원) 실행 결과 **상환율 95%달성**.
- 결론: 금융권의 '고위험 집단' 평가는 명백한 편견임이 입증됨.

[현실 ①: 배제] 은행 문턱 넘지 못한 예술인 84.9%

- 제1금융권에서 '소득 불규칙', '무직자 취급' 등의 이유로 대출 거절 또는 신청 포기.
- 4대 보험 중심의 낮은 신용평가 시스템이 예술인을 구조적으로 차별.

[현실 ②: 약탈] 10명 중 4명은 '약탈적 고금리'에 노출

- 은행 밖으로 내몰린 예술인의 48.6%가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수준인 연 15% 이상의 초고금리 이자를 부담.
-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단지 '예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고금리 강요**.

[현실 ③: 파괴] 채권추심에 10명 중 9명은 '창작 중단 혹은 위축'

- 응답자의 43%가 과도한 빚 독촉 등 '채권추심' 경험.
- 채권추심 경험자의 88.3%는 불안과 공포로 **창작 활동 중단 혹은 위축**.
- "아이들 모르게 3일 굶었다", "돈 없어 치료 포기" 등 생존 위협 현실화.

3. 결론 및 제언

[진단] 이것은 '사회적 재난'이다.

- 예술인 금융 문제는 개인의 실패가 아닌, 시스템의 실패가 낳은 구조적 재난.
- "예술인은 위험하지 않다. 위험한 것은 이들을 약탈하도록 방치하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다."

[제언] '복지'를 넘어 '금융'으로.

- 예술인에게 금융은 소득 공백기를 버티는 '산소호흡기'이자 '필수재'.
-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안적 금융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

I. 서론: 왜 예술인에게 금융은 '산소호흡기'인가

1. 창작 활동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소득 공백기'의 구조적 문제

가. '소득 공백기'의 개념과 특성: 예측 불가능한 보릿고개

- '소득 공백기(Income Gap)'의 정의

- 예술인의 소득 구조는 정기적인 '급여(Salary)'가 아닌, 프로젝트 기반의 불규칙한 '수확(Harvest)' 형태를 띤다.
- '소득 공백기'란, 하나의 '수확'과 다음 '수확' 사이에 발생하는 필연적이고 반복적인 무소득 또는 최저소득 기간을 의미함.
- 이는 단순히 소득이 적은 상태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득 단절이 반복되는 구조적 위험 상태임.

- '소득 공백기'의 4대 핵심 특성

- 현금흐름의 극심한 불일치 (Severe Cash Flow Mismatch)
- 지출의 규칙성: 월세, 공과금, 통신비, 재료비, 식비 등 생존과 창작을 위한 비용은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함.
- 수입의 불규칙성: 수입은 프로젝트 단위로 비정기적,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공백이 존재함. 이 시차는 예술인의 삶을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임.

- 예측 불가능성 (Unpredictability)

- 다음 프로젝트의 계약 여부, 시기,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이로 인해 예술인은 합리적인 재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려움. "버티면 다음 달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깜깜이 터널'과 같음.

- 장기화 경향 (Tendency for Prolongation)

- 경기 침체, 문화예술계 불황, 개인의 질병 등 외부 충격에 의해 '소득 공백기'는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음.
- 단기적인 생활비 부족이 순식간에 수개월에 걸친 생존의 위기로 비화될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함.

- 보상의 지연 (Delayed Compensation)

- 작품 창작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과 시간(비용)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작품 판매, 공연료 지급 등)은 상당한 시차를 두고 이루어짐.
- 특히 공연료나 작업비가 계약보다 늦게 지급되는 경우(설문 응답 사례 다수), 예술인은 자신의 노동으로 발생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현재를 빚으로 버텨야 하는 모순에 직면함.

나. '소득 공백기'는 구조적 문제: 개인의 실패가 아닌 시스템의 외면

- 산업 구조적 필연성

- 프로젝트 기반의 고용 형태는 예술 산업의 본질적 특성이며, 이는 예술인 개인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따라서 '소득 공백기'는 개인의 나태나 무능의 결과가 아닌, 예술이라는 직업에 내재된 고유의 직업적 위험(Occupational Hazard)임.

-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대부분의 사회 안전망은 전통적인 '상시 고용' 관계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음.
-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하고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대다수 예술인은 이러한 안전망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됨.

-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차별**

- 현행 금융 시스템의 신용평가 모델은 '소득의 안정성'과 '정기성'을 핵심 지표로 삼음.
- '소득 공백기'를 필연적으로 겪는 예술인은 시스템 내에서 '불성실', '고위험', 심지어 '무직자'로 낙인찍혀 금융 접근권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함.

다. 결론: 금융은 예술인에게 사치가 아닌 '필수 완충재'

- 이러한 구조적 위험 속에서, 금융(안정적인 저금리 대출)은 예술인에게 단순한 '빚' 이상의 의미를 가짐.
- 그것은 소득의 절벽과 절벽 사이를 이어주는 '생명의 다리'이며, 예측 불가능한 보릿고개를 버텨내게 하는 '최소한의 완충재(Buffer)'임.
- 이 완충재의 부재는 예술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창작 활동의 지속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안정적인 금융 지원은 시혜적 복지를 넘어,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 유지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되어야 함.

2. 금융의 재정의: 단순한 '빚'이 아닌, '창-작 시간을 벌어주는 완충재'

가. 전통적 금융 관점의 한계: 예술인의 삶을 왜곡하는 프레임

- 일반적으로 '대출'은 소비, 주택 구매 등 특정 목적을 위한 '부채'로 인식되며, 가능한 한 피해야 할 재무적 부담으로 간주됨.
-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소득 공백기가 일상인 예술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그들의 직업적 현실을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임.
- 예술인에게 있어 소득 공백기의 금융은 미래의 불확실한 소득을 현재로 끌어와 '생존과 창작의 시간'을 구매하는 행위에 가까움. 이는 '소비'가 아닌, 창작 활동 지속을 위한 '투자'의 성격을 가짐.

나. '금융 완충재(Financial Buffer)'의 4대 핵심 기능

'금융 완충재'로서 안정적인 저금리 대출은 예술인의 삶과 창작 활동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함.

- **기능 1: 창작의 지속성을 위한 '산소 공급'**
 - 소득 공백기는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질식 상태'와 같음.
 - 금융 완충재는 이 기간 동안 월세, 재료비, 최소 생활비 등 창작 활동의 전제 조건이 되는 비용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예술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산소호흡기'역할을 수행함.
 - **설문 사례:** "작업비가 늦게 들어와 생활이 곤란할 때, 집에 있는 걸 내다 팔고 주변에 빌리고 조아리고 다녔음." (40대 음악인) -> 안정적인 금융 완충재의 부재가 어떻게 예술가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창작 환경을 파괴하는지 명백히 보여줌.
- **기능 2: 창의성을 보호하는 '심리적 안전망'**
 -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내지?"라는 극심한 재정적 압박은 예술가의 영감과 창의성을 고갈시키는 주된 요인임. (Cognitive Load Theory)
 - 금융 완충재는 당장의 생존 불안에서 벗어나 온전히 창작에 몰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심리적 안전지대'를 제공함.
 -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예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임.
 - **설문 사례:** "자존감 하락으로 인한 창작욕 하락" (20대 음악인), "불안감과 공포로 인해 창작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음" (다수) -> 금융 문제와 창작 의욕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증명.
- **기능 3: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적 도약대'**
 - 예술계의 중요한 기회(해외 레지던시, 급한 전시 대관, 협업 프로젝트 등)는 예측 불가능하게 찾아오며, 초기 비용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금융 완충재가 없는 예술가는 자신의 커리어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눈앞에서 놓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금융은 단순히 위기를 막는 수동적 방어 수단을 넘어, 예술가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적 투자금'의 성격을 가짐.
- **기능 4: 예술적 존엄성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
- 금융적 압박은 예술가를 '을'의 위치로 내몰아, 부당한 계약 조건(낮은 계약금, 불리한 저작권 조항 등)을 수용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임.
 - 생존을 위해 작품을 헐값에 팔거나, 원치 않는 상업적 활동에 내몰리는 상황은 예술가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훼손함.
 - 금융 완충재는 이러한 부당함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협상력을 부여하며,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방패' 역할을 함.
 - 설문 사례: "작품이 별로여도 돈만 준다면... 하고 싶지 않은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50대 배우) -> 금융 압박이 어떻게 예술적 타협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

다. 결론: 금융 접근권은 예술인의 '기본권'이다

- 이상의 분석을 통해,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금융 접근권은 사치나 특혜가 아닌, 직업 활동을 지속하고 예술적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음.
- '소득 공백기'라는 구조적 위협에 노출된 예술인들에게 '금융 완충재'를 제공하는 것은, 단지 개인을 구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문화예술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과제임.
- 따라서 현행 금융 시스템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문화적 자산을 고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음.

3. 보고서의 목적 및 구성

가. 보고서의 목적: '사회적 의제'로의 전환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 **실태의 객관적 증명 (Objective-Proof)**

- 그동안 파편적인 사례나 감성적 호소에 머물렀던 예술인 금융 문제를 179명의 구체적인 응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증명한다.
- 이를 통해 예술인 금융 문제가 일부 개인의 불운이 아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명확히 한다.

- **문제의 본질 규명 (Problem-Framing)**

- 예술인 금융 문제를 단순한 '고금리 대출 이용'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서의 배제'가 어떻게 '약탈적 금융으로의 내몰림'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예술 생명의 파괴'로 귀결되는지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한다.
- 이러한 프레임 전환을 통해, 피상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 **사회적 의제 형성 (Agenda-Setting)**

- 본 보고서를 정책 입안자, 언론, 금융기관, 그리고 시민사회에 제시함으로써, 예술인 금융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공적인 사회적 의제(Social Agenda)로 격상시킨다.
- 궁극적으로는 예술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대안적 금융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보고서의 분석 틀: 배제 → 내몰림 → 파괴의 3단계 악순환 구조

본 보고서는 예술인이 겪는 금융 재난의 과정을 다음과 같은 3단계 악순환(Vicious Cycle) 구조로 분석하고 서술한다. 이 분석 틀은 한 명의 예술가가 어떻게 시스템에 의해 벼랑 끝으로 몰리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 1단계: 배제 (Exclusion) - 『제1장: 닫힌 문, ‘투명인간’이 된 예술가』

- 정의: 예술인의 직업적 특수성(소득의 불규칙성)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금융 시스템이 이들을 잠재적 고객군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계.
- 주요 현상: 제1금융권의 대출 거절, ‘무직자’ 낙인, 신용평가 시스템에서의 구조적 불이익.
- 핵심 메시지: 문제는 예술인의 신용이 아니라, 예술인을 담아내지 못하는 ‘금융 시스템의 실패’에서 시작된다.

● 2. 단계: 내몰림 (Exploitation) - 『제2장: 약탈의 덫, 법정 최고금리가 된 ‘일상’』

- 정의: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예술인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는 단계.
- 주요 현상: 저축은행, 카드로론, 대부업체, 개인 사채 의존 심화, 살인적인 이자 부담.
- 핵심 메시지: 이는 예술인의 ‘비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비자발적이고 강요된 선택’이다.

● 3. 단계: 파괴 (Destruction) - 『제3장: 멈춰버린 창작, 짓밟힌 존엄』

- 정의: 고금리 부채의 무게와 가혹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예술인의 삶과 창작 활동이 총체적으로 붕괴되는 마지막 단계.
- 주요 현상: 채권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창작 활동의 전면 중단, 인간관계 파괴, 생존 자체의 위협.

- 핵심 메시지: 예술인 금융 문제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과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자산(예술)을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다.

이러한 3단계 분석 틀을 통해, 본 보고서는 독자들이 문제의 근본 원인부터 파괴적인 결과까지의 전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도록 이끌 것이다.

II. 닫힌 문, ‘투명인간’이 된 예술가

- 제도권 금융에서의 구조적 배제 실태 -

서론에서 밝혔듯, 예술인 금융 재난의 출발점은 개인의 과소비나 재무 관리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이 예술인이라는 직업군을 잠재 고객으로 인정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는 구조적인 ‘배제(Exclusion)’에서 시작된다. 이번 장에서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 그 차갑고 단단한 ‘배제의 벽’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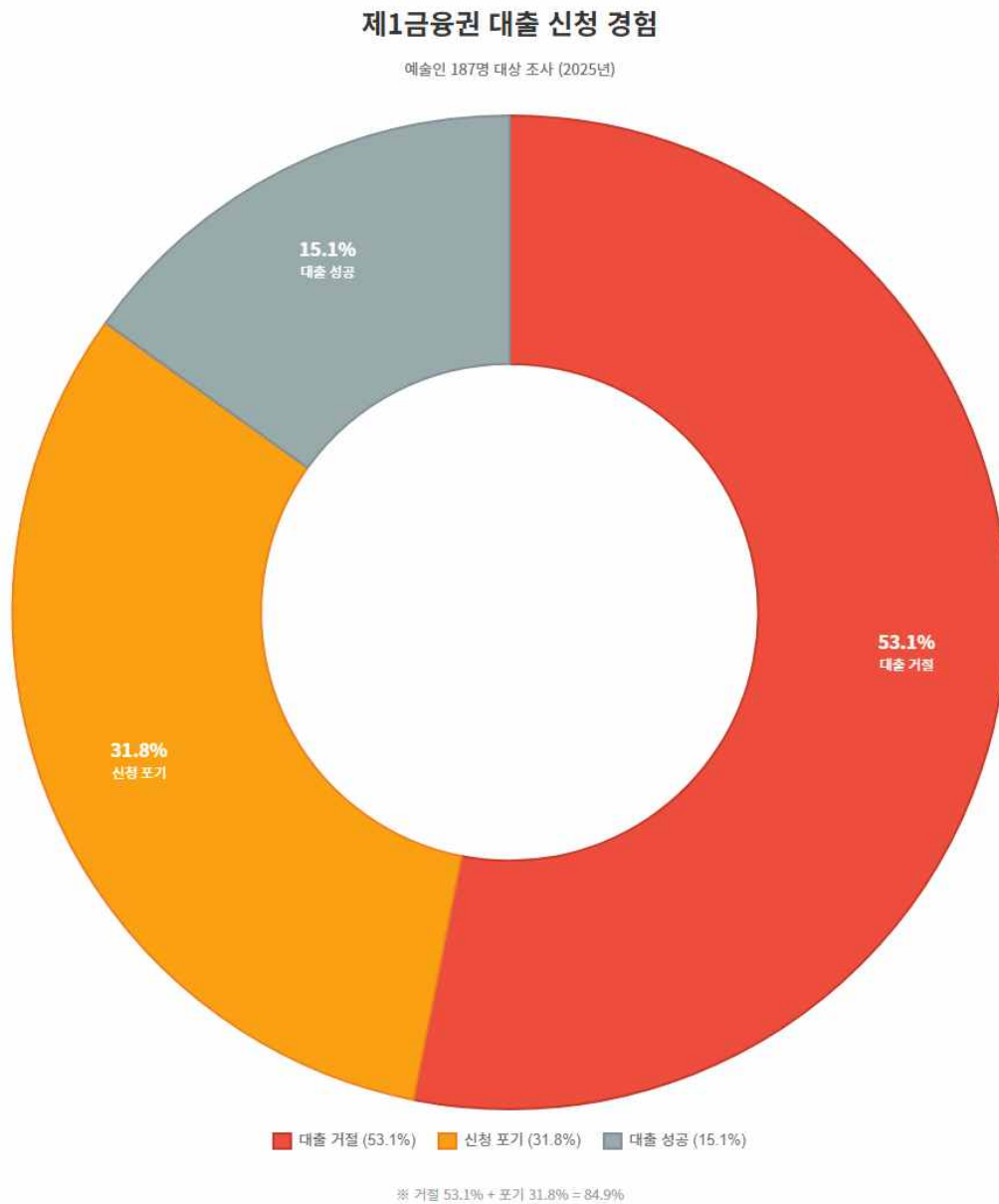
1. 84.9%의 절망: 거절당하거나, 포기하거나

제1금융권(시중은행)은 재무 건전성의 상징이자 가장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1차 금융 안전망이다. 그러나 예술인들에게 이 안전망은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 ‘거절’과 ‘포기’의 이중 장벽

- 설문에 참여한 예술인 중 과반이 넘는 84.9%가 최근 3년 내 제1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53.1%는 대출을 신청했다가 직접적으로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며, 31.8%는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인해 신청조차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프 1 참조)

그래프 1: 제1금융권 대출 신청 경험



- ‘그림자 거절(Shadow Rejection)’의 심각성
 - 주목해야 할 점은 ‘신청조차 포기’한 31.8%의 존재다. 이는 공식적인 대출 거절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그림자 거절’집단이다.
 - 이들은 반복된 금융 실패 경험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스스로를 ‘자격 미달자’로 낙인찍고, 가장 기본적인 금융 접근권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상태에 내몰려 있다.

- 이는 실제 금융 소외 규모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단순한 대출 승인을 개선을 넘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예술인들의 근본적인 불신과 소외감을 해결해야 함을 보여준다.
- **결론: 절반 이상의 예술인에게 은행은 ‘없는 존재’**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예술인의 절반 이상에게 제1금융권은 위기 시 기댈 수 있는 금융 안전망이 아닌, 존재하지 않거나 접근할 수 없는 ‘유리 벽’에 불과하다. 1차 안전망의 부재는 이들이 곧바로 제2, 제3 금융권이 라는 더 위험하고 값비싼 선택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의 출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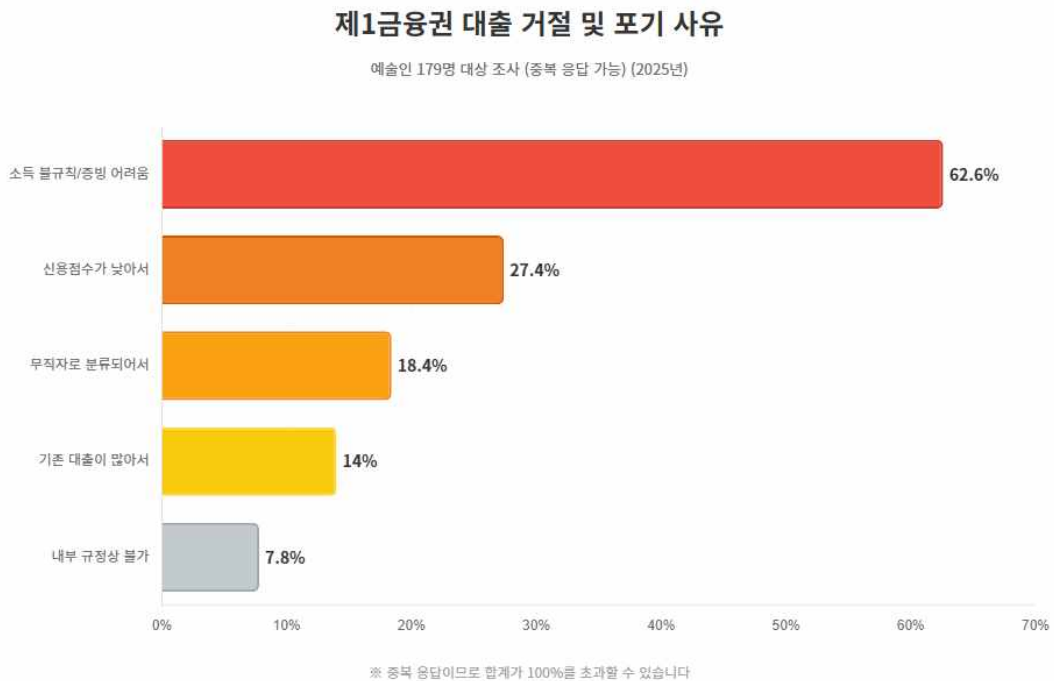
2. 은행이 짝은 낙인: "당신은 무직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술인의 절반 이상은 제1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가? 설문조사 결과는 그 원인이 예술인 개인의 신용 문제라기보다는, 이들의 직업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의 획일적이고 차별적인 평가 잣대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 **‘소득 증빙’의 벽: 증명할 수 없는 성실함**
 -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신청을 포기한 예술인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증빙이 어려워서’(62.6%)였다. 이는 압도적인 1위 응답으로,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프 2 참조)
 -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소득 공백기’의 문제가 금융 시스템에서 어떻게 직접적인 페널티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아무리 성실하게 창작 활동에 임해도, ‘정기적인 급여’라는 형태로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금융 시스템은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 **‘무직자’라는 낙인: 지워지는 직업 정체성**
 - 다른 비율이 높은 거절 사유 중 하나는 ‘무직자(無職者)로 분류되어서’(18.4%)였다. 이는 단순한 소득 증빙의 문제를 넘어, 금융 시스템이 ‘예술인’이라는 직업 자체를 안정적인 경제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다.

- 설문 사례: "연극배우라고 하자 '무직자'라고 대출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50대 배우)
- 이러한 경험은 예술가에게 단순한 대출 거절을 넘어,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과 사회적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깊은 모멸감과 무력감을 안겨준다.

그래프 2: 제1금융권 대출 거절 및 포기 사유 (중복 응답)



● 악순환의 시작: 신용점수 하락의 구조

- ‘신용점수가 낮아서’(27.4%)라는 응답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이는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에 가깝다.
- 제1금융권 접근이 막힌 예술인들은 생존을 위해 고금리의 카드론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금리 대출은 그 자체로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작은 연체라도 발생할 경우 신용점수는 급격히 하락한다.
- 결국 ‘소득 증빙 불가 → 제1금융권 배제 → 고금리 대출 의존 → 신용점수 하락 → 제1금융권 배제 심화’라는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 결론: 시스템이 만든 ‘불량 채무자’

- 이상의 분석을 통해, 많은 예술인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개인의 채무 관리 실패 이전에, 이들을 처음부터 ‘잠재적 불량 채-무자’로 규정하고 기회를 박탈하는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 은행이 짚은 ‘무직자’라는 낙인은, 성실한 예술가들을 시스템 밖으로 밀어내고 결국 진짜 채무적 위험에 빠뜨리는 ‘자기실현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1장의 결론은 명확하다. 문을 닫은 것은 예술인이 아니라, 은행이었다.

III. 약탈적 금융에 저당 잡힌 대한민국의 예술

-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의 비자발적 내몰림 -

제1금융권이라는 1차 안전망에서 밀려난 예술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생존의 벼랑 끝에서 그들은 더 가파르고 위험한 길, 즉 고금리의 제2, 제3 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번 장에서는 그 ‘비자발적 내몰림(Exploitation)’의 실태와 그것이 예술인들에게 지우는 약탈적인 무게를 분석한다.

1. 은행 밖은 낭떠러지였다: 고금리 상품 의존 실태

은행 문이 닫힌 순간, 예술인들은 곧바로 고금리 대출 시장에 노출되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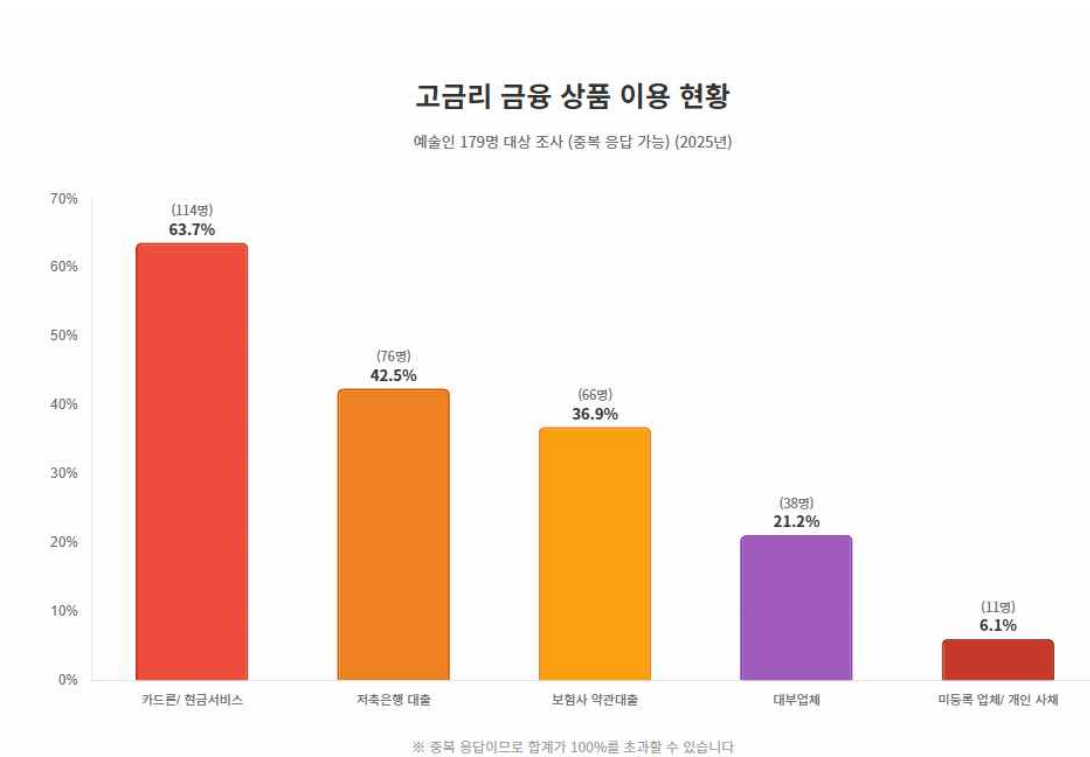
- 고금리 대출의 일상화: 83.2%의 경험률

설문에 참여한 예술인 중 압도적인 다수인 83.2%가 저축은행, 카드론, 대부업체, 개인 사채 등 하나 이상의 고금리 금융 상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고금리 대출이 일부의 문제가 아닌, 예술인들에게 보편적인 자금 조달 창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다.

● 위험으로의 단계적 이동: 카드론에서 사채까지

- 고금리 상품 이용 행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카드사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많은 예술인들이 소득 공백기에 가장 먼저 손쉽게 기댈 수 있는 급전 창구임을 시사한다.
-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카드론 등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예술인들은 ‘저축은행’, ‘보험사 약관대출’, 그리고 ‘대부업체’로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였다.
-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응답자의 7.8%가 가장 위험한 자금 조달 방식인 ‘미등록 업체 및 개인 사채’까지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실패한 지점에서, 예술인들이 불법과 착취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프 3 참조)

그래프 3: 고금리 금융 상품 이용 현황 (중복 응답)



- 결론: 선택지가 없는 ‘강요된 선택’

이러한 결과는 예술인들의 고금리 대출 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충동적’인 선택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1차 안전망의 부재 속에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만 하는 ‘강요된 선택(Forced Choice)’이다. 은행이 외면한 자리를 고금리 대출 시장이 파고들어, 절박한 예술인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는 약탈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2. 41.2%의 신음: 살인적인 이자율의 무게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의 내몰림은 단순히 ‘어디서 돈을 빌리는가’의 문제를 넘어, ‘얼마나 약탈적인 대가를 치르는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설문조사 결과는 예술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자율이 ‘높은’ 수준을 넘어 ‘살인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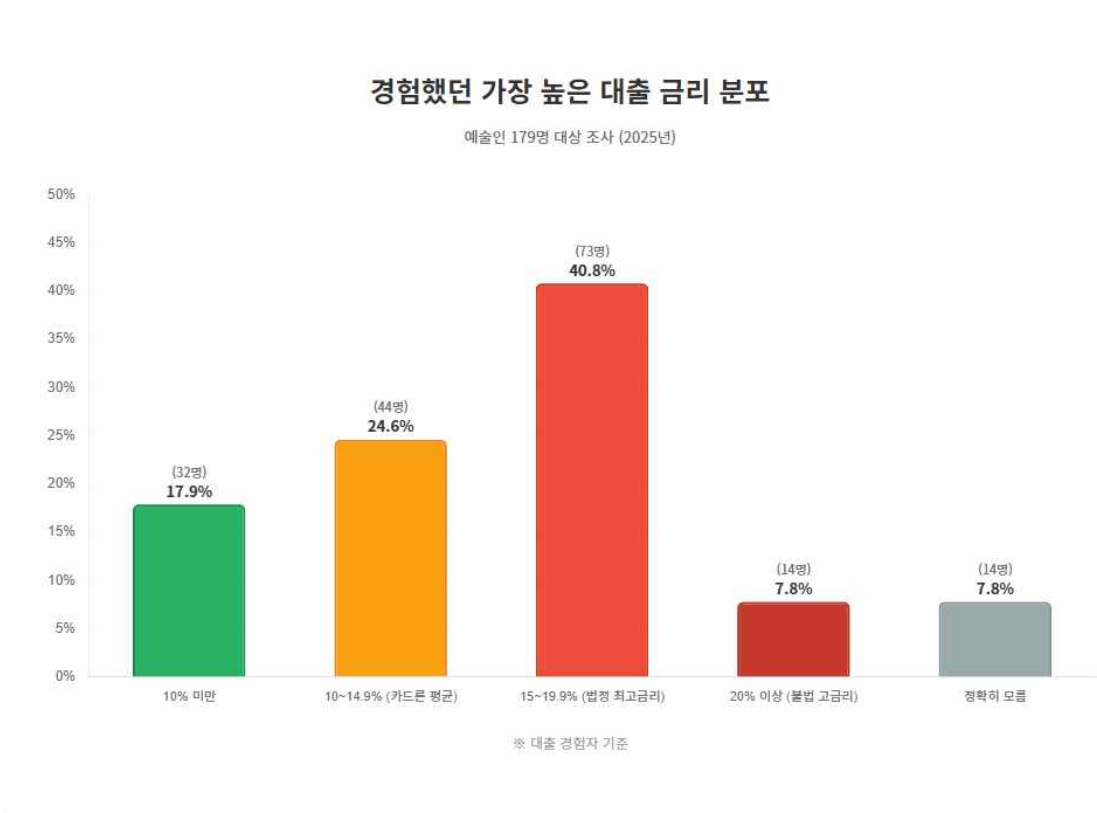
- 법정 최고금리가 된 ‘일상 금리’

- 대출 경험이 있는 예술인 중 48.6%가 연 15% 이상의 초고금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명 중 5명 가까이 사실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다. (그래프 4 참조)
- 특히, 응답자의 40.8%는 연 15% ~ 19.9% 구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법정 최고금리(연 19.9%)에 육박하는 금리로, 금융기관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 이들에게 ‘법정 최고금리’는 위급상황의 예외적인 금리가 아닌, 대출 시장에서 마주하는 ‘표준 금리’이자 ‘일상 금리’가 되어버렸다.

-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

- 더욱 심각한 것은, 응답자의 7.8%가 연 20%를 초과하는 명백한 ‘불법 고금리’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제도권 금융의 실패가 예술인들을 불법 사금융의 직접적인 범죄 피해자로 만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 또한, ‘이자율을 정확히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7.8%에 달했다. 이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자율 등 핵심적인 계약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묻지마 대출’에 내몰리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드러낸다.

그래프 4: 경험했던 가장 높은 대출 금리 분포



- **이자 부담의 악순환: 창작 시간을 갉아먹는 빚**

- 연 15~20%의 고금리는 ‘소득 공백기’를 버티기 위해 빌린 소액의 원금을 눈덩이처럼 불린다.
- 예술인은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창작 활동을 줄이고, 더 많

은 시간을 저임금 아르바이트에 쏟아부어야만 한다.

- 이는 결국 ‘생존을 위한 빛 → 이자 상환을 위한 노동시간 증가 → 창작 시간 감소 → 예술 소득 감소 → 더 큰 빛’이라는 파괴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 설문 사례: "12년간 낸 이자의 절반만 되었어도 빚을 없었을 겁니다. 작품보다 매달 소일거리 찾기에 집중해야 하는 악순환에 갇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40대 음악인) → 고금리가 어떻게 예술가의 시간을 빼앗고 창작의 기회를 박탈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 결론: 금융이 아닌 ‘약탈’

- 은행 밖에서 예술인들이 마주한 것은 ‘금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절박함을 담보로 범의 한계선까지 이윤을 짜내는 명백한 ‘약탈 (Exploitation)’이었다.
- 살인적인 고금리는 단순한 재무적 부담을 넘어, 예술가의 시간을 빼앗고, 창작 의지를 꺾으며, 삶을 서서히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제2장의 결론은 명확하다. 그들이 빌린 것은 돈이었지만, 갚아야 했던 것은 자신의 삶과 예술 그 자체였다.

IV. 제2의 최고은 작가들은 다시 ‘빛’ 때문에 죽어간다

- 채권추심이 예술가의 삶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 -

제도권 금융에서의 ‘배제’와 약탈적 고금리 시장으로의 ‘내몰림’이 마주하는 종착지는 바로 ‘채무 불이행’과 그에 뒤따르는 가혹한 ‘채권추심’이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금융 문제는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닌, 한 인간의 존엄성과 예술 생명 자체를 파괴하는 폭력으로 변질된다. 이번 장에서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 그 파괴의 실상을 고발한다.

1. 10명 중 4명의 악몽: 채권추심의 일상화 (43%)

채권추심은 일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닌, 예술인 상당수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고통이었다.

● 충격적인 경험률: 43%

- 설문에 참여한 예술인 10명 중 4명 이상(43%)이 대출금 연체로 인해 채권추심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예술인 커뮤니티 내에 빚 독촉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다. (그래프 5 참조)
- 이 수치는 단순히 연체율을 넘어, 예술인들이 얼마나 상환 압박에 취약한지를 증명하며, '소득 공백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상환 시스템의 폭력성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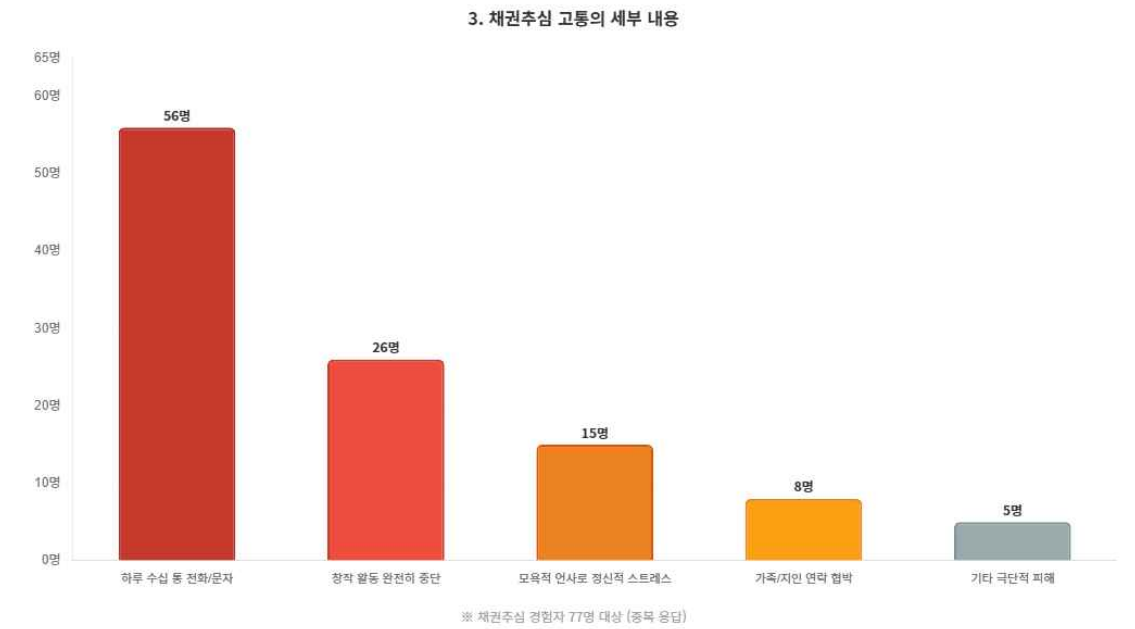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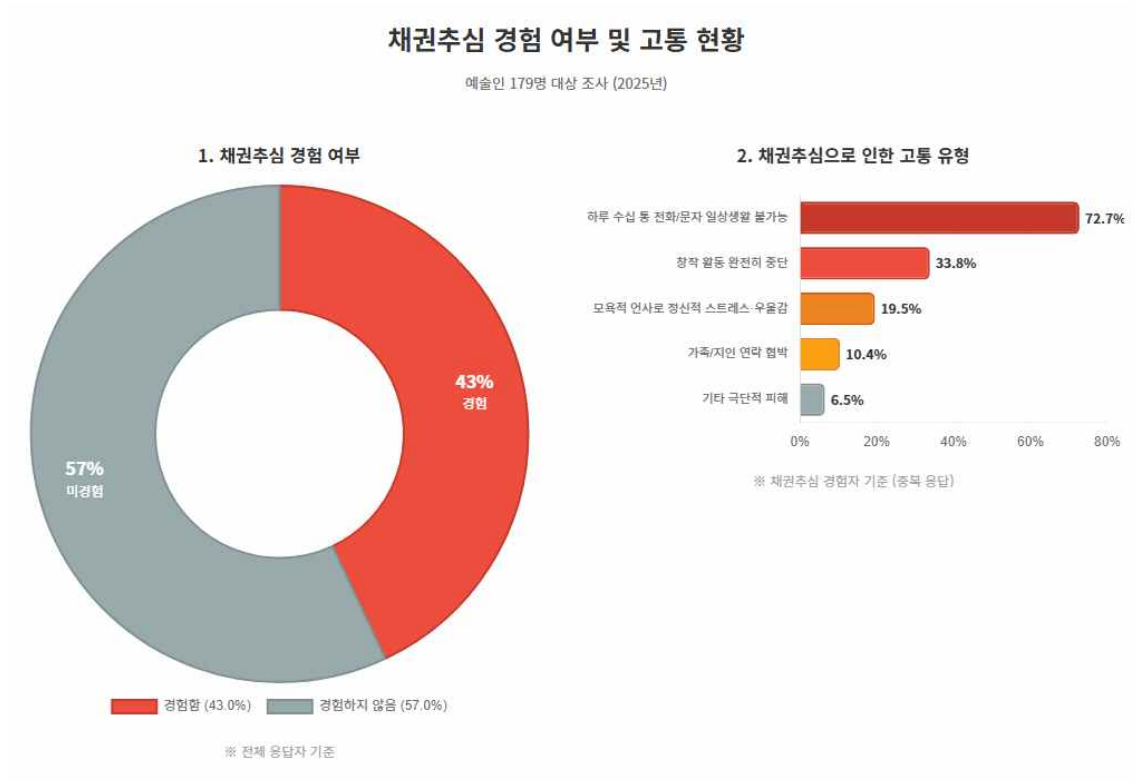
● 일상의 파괴: 멈추지 않는 전화와 문자

- 채권추심 경험자 중 과반이 훌쩍 넘는 72.7%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전화/문자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고 응답했다.
- 이는 채권추심이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조차 충분히 한 개인의 일상을 마비시키고, 정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임을 보여준다. 특히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창작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인격의 파괴: 모욕과 협박

- 채권추심은 단순한 독촉을 넘어 인격적 모욕과 심리적 압박을 동반했다.
- 경험자의 19.5%가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10.4%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고 답했다.
- 심지어 '집으로 찾아왔다'는 극단적인 사례도 존재했다. 이는 채권추심이 예술가의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까지 침범하며, 삶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그래프 5: 채권추심 경험 여부 및 유형 (중복 응답)



2. "창작을 완전히 중단했다": 예술 생명을 앗아가는 빛의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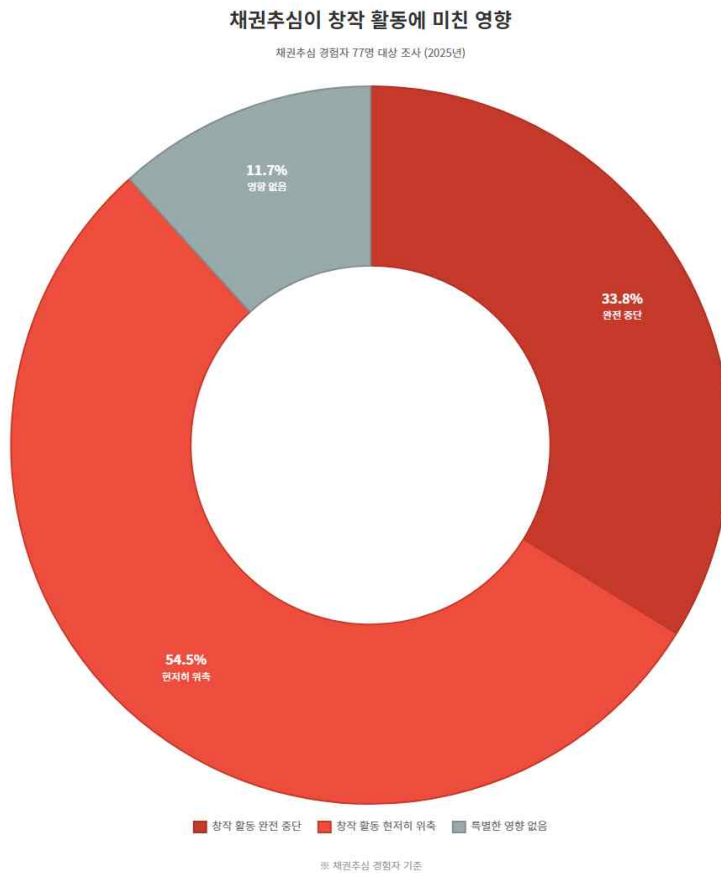
채권추심이 가하는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단순히 돈을 갚아야 한다는 재무적 압박을 넘어선다. 그것은 예술가의 영혼을 잠식하고, 창작의 의지를 꺾으며, 끝내 예술 생명 자체를 멈추게 하는 ‘문화적 파괴 행위’이다.

● 멈춰버린 영감: 10명 중 9명의 창작 활동 중단 및 위축

채권추심을 경험한 예술인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88.3%가 ‘불안감과 공포로 인해 창작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거나 현저히 위축되었다’고 응답했다. (그래프 6 참조)

이는 채권추심이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 사회가 누려야 할 새로운 예술 작품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가로막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데이터다. 한 편의 시가, 한 곡의 노래가, 한 폭의 그림이 빛 독촉 전화에 의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프 6: 채권추심이 창작 활동에 미친 영향



● 창작 중단 메커니즘: 인지적 자원의 고갈

창작은 고도의 정신적 집중과 심리적 안정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채권추심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예술가의 창작 능력을 근본적으로 파괴한다.

- **인지적 과부하 (Cognitive Overload):** 끊임없는 독촉 전화와 문자, 상환 압박에 대한 고민은 예술가의 인지적 자원(주의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을 전부 소진시킨다. 창작에 쏟아야 할 정신적 에너지가 빚 문제 해결에 모두 빼앗기는 것이다.
- **심리적 위축 (Psychological Contraction):** 채권추심이 유발하는 모멸감, 우울감, 불안감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자신을 표현하려는 예술가의 본능을 억누른다. 자기 검열이 심해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며, 창작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 **사회적 고립 (Social Isolation):** 빚 문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예술가를 고립시킨다. 동료 예술가와의 교류나 협업이 단절되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거나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잃게 된다.
- **설문 사례:** "독촉 전화로 연습과 공연에 지장을 주고 이로 인해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이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하고 다음날이 두려워 짐." (40대 연극인) -> 채권추심이 어떻게 창작의 과정 자체를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방해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 결론: 사회가 예술가를 포기하게 만드는 과정

- 많은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배고파서' 예술을 그만둔다고 생각하지만, 데이터는 더 잔혹한 진실을 보여준다. 그들은 배고픔을 견디면서까지 예술을 지키려 했지만, 빚 독촉이라는 사회적 폭력 앞에서 결국 붓을 쥐고 악기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다.
- 채권추심은 단순히 빚을 받아내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한 명의 예술가에게 "이 사회는 당신의 예술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장 잔인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각인시키고, 스스로 예술가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 파괴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3. 데이터 너머의 목소리: 가슴을 치는 증언들

- 지금까지의 분석은 통계와 데이터라는 객관적인 언어로 예술인 금융 재난의 구조를 증명했다. 그러나 이 차가운 숫자들 뒤에는 벼랑 끝에서 버티고 있는 예술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눈물과 신음이 있다.
- 이번 장에서는 설문을 통해 예술인들이 직접 들려준 증언들을 통해, '금융 문제'가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파괴하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자 한다. 이 목소리들은 이 보고서가 왜 쓰여야만 했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답변이다.

가. 생존의 위협: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금융 문제는 추상적인 재무 지표가 아닌, 먹고, 자고, 아플 때 치료받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현실의 문제였다.

- "아이들 모르게 나만 3일을 굶었던 기억."
(50대, 연극인)
- "돈이 없어 절박했던 치과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병원을 제때 가야 하는데, 안 가고 웬만하면 참는 것이 이제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50대, 배우)
- "돈이 없어서 귀 치료를 계속 미뤘고, 그로 인해 양쪽 귀 다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30대, 음악인)
- "병원에 입원 중이신 어머니의 병원비를 낼 수 없어, 퇴원을 미루기도, 받아야 할 검사와 치료를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50대, 배우/방송인)
- "임대료 연체로 인해 단체 사업장이자 거주지에서 비자발적으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금융권은 물론 예술인 대출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50대, 배우)

- "경제적 형편의 문제로 갈 곳이 없어 고시원, 연습실 등을 전전하다 한동안 **노숙**을 한 적이 있습니다."

(30대, 음악인)

나. 창작의 좌절: "공연을 할수록 빛만 늘어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생존의 위협 속에서 예술가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꿈, 창작 활동을 포기해야만 했다. 금융 압박은 그들의 손에서 붓과 펜을 빼앗아 갔다.

- "하루 4시간도 채 못 자며 알바와 연극을 병행하지만, 공연을 할수록 빛만 늘어가는 상황이 계속되어 **공연을 그만두기로 함.**"

(30대, 배우)

- "작품보다 매달의 **금전적 해결을 우선순위로**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아쉽습니다. 예술인으로서 큰 수익을 내려면 작품이 잘 돼야 하는데, 작품보다 매달 소일거리 찾기에 집중해야 함이 악순환 속에 갇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40대, 음악인)

- "당장의 매달 닥쳐오는 대출금으로 인해 **공연을 접고 알바에 집중**한 적이 많음."

(50대, 배우)

- "돈이 없으면 삶이 무너지는데 예술 창작은 꿈도 못 꾸죠."

(50대, 예술가)

다. 관계의 단절과 인간적 모멸감: "치욕감과 인연 단절"

금융 문제는 개인을 사회로부터 고립시켰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의 치욕감, 갚지 못하는 미안함은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 파괴했다.

-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드는 그 **치욕감과 인연 단절**, 그리고 갚지 못하면서 밀려오는 **압박감, 무력감.**"

(50대, 만화가/미술가)

- "힘들 때는 친한 지인의 경조사에 참석할 수도 없을 정도였고, 그로

인해 인간관계조차 단절된 적이 있다."

(50대, 배우/방송인)

- "서민을 위한 제도임에도 예술인이라는 이유로 증빙이 부족할 때 자괴감을 느낍니다."

(30대, 영화/방송인)

- "연극배우라고 하자 '무직자'라고 대출담당으로부터 들었던 것."

(50대, 배우)

이 목소리들은 명백히 증언한다. 예술인 금융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예술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자화상이다.

V. 결론: 이것은 사회적 재난이며, 복지만으로는 부족하다

1. 결정적 증거: 예술인은 '위험하지' 않았다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179명의 증언을 통해 예술인들이 금융 시스템에서 어떻게 배제되고 약탈당하며 파괴되는지를 분석했다. 금융권은 '소득 불규칙'과 '증명 불가'를 이유로 이들을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하고 문을 닫았다.

그러나, 과연 예술인은 정말로 위험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본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전제이자 결론이다. 저희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지난 3년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사회적 실험을 진행했다. 금융권이라면 '대출 불가' 판정을 내렸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신용점수나 소득증빙이 아닌 '동료의 신뢰'를 기반으로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을 실행했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354건의 대출, 약 7억 원의 규모, 그리고 ‘상환율 95%’

- 신용과 무관하게 진행된 대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율은 시중 금융권과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은 95% 이상을 기록했다.
- 이는 예술인들이 결코 상환 의지나 능력이 없는 ‘무책임한 집단’이 아님을, 오히려 공동체의 신뢰에 보답하려는 책임감 있는 ‘성실한 금융주체’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실증 데이터이다.
- 이 ‘95% 상환율’이라는 데이터는 본 보고서가 분석한 모든 비극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결정적 증거다. 이는 예술인 금융 문제가 ‘리스크 관리’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편견과 차별’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값을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고 **약탈적 고금리 시장**으로 내몬 것은, 합리적 판단이 아닌 **시스템의 폭력**이었다.

2. 분석 결과 요약: 배제, 내몰림, 파괴의 악순환 증명

본 보고서는 통계의 표본이 되는 179명 예술인의 목소리를 통해 대한민국 예술인 금융 문제가 ‘배제 → 내몰림 → 파괴’라는 3단계의 체계적인 악순환 구조를 통해 개인의 삶과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자산을 파괴하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했다.

● 1단계: 구조적 배제(Exclusion)

- 금융 시스템은 ‘소득 불규칙’과 ‘무직자’라는 낙인으로 예술인의 84.9%를 제도권 밖으로 밀어냈다. 이는 금융 접근의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단계: 약탈적 내몰림(Exploitation)

- 은행 밖으로 내몰린 예술인들은 생존을 위해 고금리 상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48.6%가 연 15% 이상의 살인적인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는 ‘선택’이 아닌 명백한 ‘약탈’의 구조다.

- 3단계: 총체적 파괴(Destruction)

- 약탈의 끝에서 43%의 예술인이 채권추심이라는 사회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그 결과 창작 활동을 중단하고 삶의 존엄성을 짓밟히는 파괴적 결과를 맞이했다.
- 결론적으로, 예술인 금융 문제는 개인의 신용불량 문제가 아닌, 예술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이자 ‘사회 안전망의 총체적 부재’가 낳은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

3. 정책적 함의: 복지의 온정 너머, '금융'이라는 현실적 버팀목이 필요하다

故 최고은 작가의 비극 이후, 우리는 ‘예술인 복지법’을 통해 예술인의 삶에 최소한의 온정을 더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결과는 명백히 보여준다. 일시적인 지원금이나 창작 지원금 같은 ‘복지’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 복지가 채우지 못하는 ‘소득 공백기’

- 복지 정책은 대부분 특정 시점의 ‘결과(빈곤 상태)’에 대한 사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예술인 문제의 핵심은 예측 불가능하게 반복되는 ‘과정(소득 공백기)’에 있다.
- 이 공백기를 버텨낼 현실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복지 제도가 있어도 예술인은 위기의 순간에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 설문 사례: "기초수급자이지만... 긴급생계 지원도 거절당하고 결국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40대 연극인) -> 이는 현행 복지 시스템이 예술인의 긴급한 유동성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 **예술인에게 금융은 사치가 아닌 '필수재'**

- 본 보고서는 예술인에게 금융이 단순한 '빚'이나 '사치'가 아님을 역설한다.
- 그것은 소득의 절벽과 절벽을 이어주는 '생존의 다리'이며, 창작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완충재'이다.
- 복지가 '물고기'를 주는 것이라면, 금융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다음 기회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뗏목'과 같다. 우리에게서 물고기뿐만 아니라 뗏목도 절실히 필요하다.

4. 제언: 이제 우리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더 이상의 침묵은 공모나 다름없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 사회 각 주체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와 국회에 제언합니다**

- 예술인 금융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예술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대안적 금융 시스템 구축에 정부가 적극적인 파트너로 나서야 한다. 민간의 자조 노력에 공공의 자원을 결합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금융기관에 제언합니다**

- 획일적인 신용평가 모델을 개선하고, 예술인의 불규칙한 소득 패턴과 미래 창작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대안 신용평가 시스템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 이는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넘어, '문화'라는 새로운 가치에 투자하는 미래지향적 금융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예술계와 시민사회에 제안합니다

- 우리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손으로 직접 ‘예술인을 위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 이 보고서가 그 첫걸음의 단단한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5. 언제까지 우리는 캔버스 뒤의 눈물을 외면할 것인가?

한 명의 예술가가 붓을 꺾는 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자산이 소실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담긴 예술인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에 이제 우리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이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

Social / Mutual ART

한국스마트협동조합

TEL: 02-764-3114

E-mail: contact@kosmart.org

Web: kosmart.org